

유창성장애 성인의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들의 비교

김 재 옥^{1,2}, 신 문 자¹

¹신·언어임상연구소

²연세대학교 음성언어의학연구소

Comparison of Stuttering Self-Rating Scales in Adults with Stuttering

Jaeock Kim^{1,2}, Moonja Shin¹

¹Shin's Speech-Language Clinic

²The Institute of Lopedics and Phoniatics, Yonsei University

E-mail: jaeock@gmail.com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self-rating scales (SSS, S-24, P-FA, and PSI) translated into Korean in adults with stuttering. Eighteen adults with stuttering were participated. Each scale was divided into two sub-categories, avoidance and locus of control. The correlations among the scales and among the sub-categories were evaluated. Objective stuttering severity and self-rated stuttering severity were compared. Results indicated that those scal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Total score in each scale and each sub-category were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tal score nor subjective stuttering severity with objective stuttering severity. The self-rating scales in adults with stuttering currently used in clinics and research areas in Korea are suitable tools that adults with stuttering can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and attitudes for stuttering subjectively.

I. 서론

유창성장애를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평가자가 비유창성의 출현빈도와 유형 및 중증도를 점수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유창성장애를 경험하는 대상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비유창성을 자가 보고

하게 하여 그들이 내재적으로 경험하는 비유창성의 중증도를 포함한 특성 및 의사소통에 대한 주관적 태도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승환, 2005).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성인의 말더듬에 대한 자가보고 형태의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로는,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P-FA; 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04)의 하부검사로 중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태도 평가가 있으며, Andrews와 Cutler(1974)의 수정된 Erickson의 의사소통태도 검사(S-24)와 Woolf(1967)의 말더듬 지각검사(Perceptions of Stuttering Inventory PSI)가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Riley & Maguire(2002)의 주관적 말더듬 척도(Subjective stuttering scale: SSS)와 최근 이를 수정한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검사도구(Subjective screening of stuttering severity, locus of control and avoidance: research edition: SSS; Riley, Riley & Maguire, 2004)가 소개된 바 있다.

이들 외국의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들은 아직 공통적으로 번안되지 않고 각 임상현장에서 나름대로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어, 원문과 다르거나 불분명하게 번안되어 말더듬 대상자로부터 얻어진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되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또한 SSS는 주관적 말더듬 척도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수정 전 도구만 소개되었고(신문자, 2002), 현재 한국 임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 거의 사용이 미미하다.

Manning(2001)에 의하면, 청장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가보고용 말더듬 평가도구들이 여러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주로 중증도, 혹은 자기통제 및 회피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Riley, Riley, & Andrew, 2004). 이 세 가지 측면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로 상호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치료에 의한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령, 말더듬의 중증도가 치료에 의해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으로 많이 호전되었다고 평가될 수는 있지만 말이나 상황에 대한 회피의 수준, 그리고 자기통제의 기전을 치료 전과 비교하였을 때 변화가 없을 수 있어 각 세부영역을 구분지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창성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국내 임상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거나 소개된 바 있는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이분법적인 응답범주의 다른 평가도구들과 평정식 척도의 평가도구인 SSS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고 SSS가 국내 임상에 적용하기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를 다른 평가도구들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신-언어임상연구소에서 유창성장애로 진단받은 발달성 말더듬 성인 18명(평균연령: 25세, 범위: 14-38세)을 대상으로 네 가지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를 동시에 주고 작성하게 하였다. 남성은 13명, 여성은 5명이었다. 대상자들이 치료를 시작하기 전 언어치료사에 의해 P-FA나 말더듬 중증도 검사도구(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ults, 3rd ed.; SSI-3, Riley, 1994)를 이용하여 유창성장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말더듬 중증도를 살펴보면 '심함'이 7명, '중간'이 7명, '약함'이 4명이었다.

SSS, S-24, PSI는 영어 원문을 유창성장애 치료 경험이 1년 이상인 언어치료사 10명이 함께 번안하고 번역의 적절성과 자연성을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또한 네 도구를 회피, 자기통제의 세부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1주 내지 2주 후에 2차 평가를 하게 한 후 18명의 자료 중 임의로 20%에 해당하는 4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Pearson 상관분석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에 대한 대상자의 1차와 2차 평가간의 신뢰도는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r = 0.97, p < 0.001$).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네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의 총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2.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의 각 세부영역간의 상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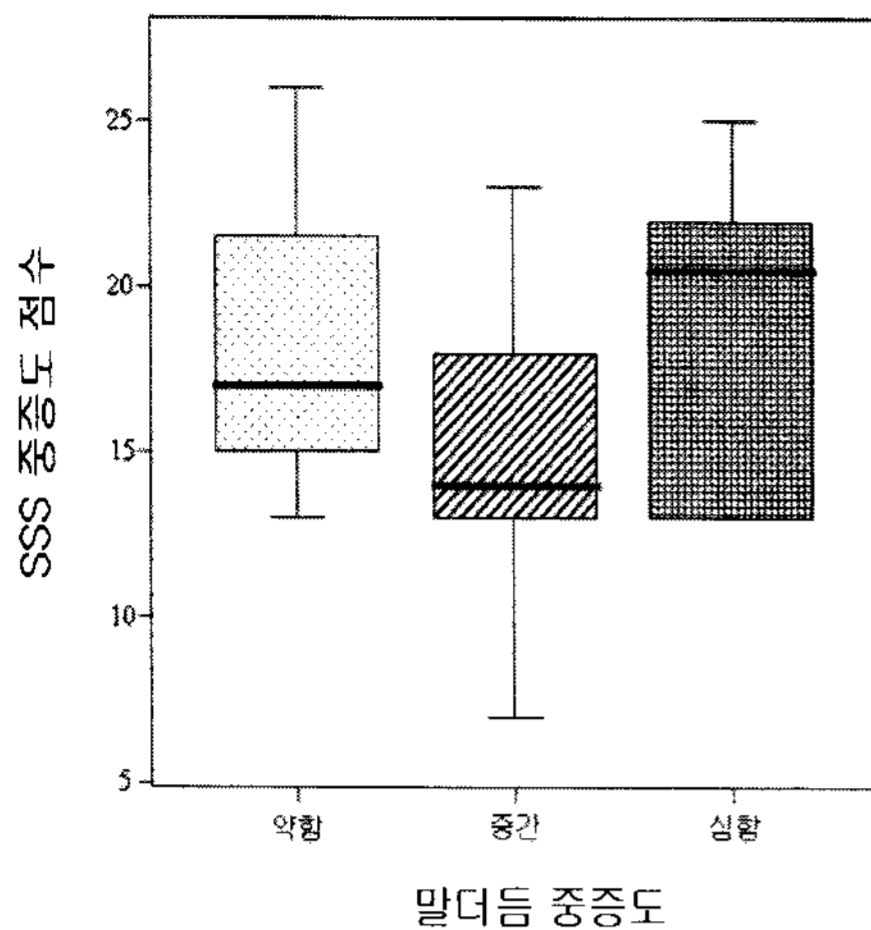
계를 측정하였다.

3.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의 총점수와 세부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4. P-FA나 SSI-3(Riley, 1994)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된 말더듬 중증도 분류(약함, 중간, 심함)에 따라 SSS의 문항 1번과 2번에 의해 산출된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점수, 그리고 각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의 총점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모든 자료의 분석결과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였다.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간의 상관관계,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의 각 세부영역간의 상관관계,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의 총점수와 세부영역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으로 측정하였다. 객관적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SSS의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점수와 각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의 총점수들의 차이는 Kruskal-Wallis 검증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각 대상자들의 네 가지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 총점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0.88 \leq r \leq 0.72$).
2.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의 각 세부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회피의 경우, 네 가지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0.74 \leq r \leq 0.83$), 자기통제의 경우, SSS와 P-FA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도구간의 관계는 중등도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0.49 \leq r \leq 0.74$)를 보였다.
3. 각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의 총점수와 두 세부영역간의 상관관계는 모든 평가도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정적 상관관계($0.82 \leq r \leq 0.95$)를 보였다.
4. 객관적 말더듬 중증도의 약함, 중간, 및 심함의 분류에 따른 SSS의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점수 및 각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의 총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1>은 객관적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SSS의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점수를 boxplot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객관적 중증도가 중간인 대상자들의 SSS의 주관적 중증도 점수가 가장 낮았고, 객관적 중증도가 약함과 심함에 27 ~ 75%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분포도는 거의 유사했다.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소개된 적이 있는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들을 비교하고 각 도구들이 국내 임상현장에서 유창성장애 청장년기 성인들의 진단 및 치료효과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한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에 소개는 되었지만, 한국어로 번안되지 않은 SSS를 중심으로 다른 평가도구들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우선 첫째로, SSS와 나머지 세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들간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SSS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평가도구들의 점수가 높았으며, SSS 점수가 낮을수록 다른 평가도구들의 점수가 낮아, 9점 척도의 평정식 척도의 평가도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분법 응답범주의 평가도구의 점수도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둘째로,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의 각 세부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SSS와 나머지 세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들의 회피 항목들이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통제 항목들도 중증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PSI의 회피와 자기통제 항목들과 SSS의 회피와 자기통제 항목들간의 상관관계를 본 Riley, Riley, & Andrew(2004)의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Riley, Riley, & Andrew(2004)의 연구에서는 회피 항목들간의 상관관계($r = 0.83, p < 0.01$)가 자기통제 항목들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r = 0.70, p = 0.05$)를 보였는데, 이는 회피의 항목들이 자기통제의 항목들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덜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Riley, Riley, & Andrew(2004)는 설명하였다.

셋째로, 각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에서의 총점수 및 회피와 자기통제의 세부영역 점수간의 상관관계 또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모든 평가도구에서 총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 및 자기통제의 점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넷째로, 객관적으로 평가한 말더듬 중증도를 약함, 중간, 심함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라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세 분류에 따른 SSS의 중증도 점수 및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의 총점수에서, 심함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평균값이 약함이나 중간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평균값보다 네 평가도구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말더듬에 대한 특징이나 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객관적으로 심한 정도의 말더듬을 하는 대상자와 약한 정도의 말더듬을 하는 대상자들간의 말더듬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그림 1>에서와 같이 객관적으로 심한 정도의 말더듬을 하는 대상자들의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평가의 분포가 낮은 점수에서부터 높은 점수까지로 넓었다. 이는 말더듬 사건에 대한 대상자의 자가 평가와 임상가나 연구가에 의한 객관적 평가는 낮은 일치율을 보일 수 있다는 이전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 (Cordes & Ingham, 1994 Tuthill, 1946).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소개된 바 있는 주관적 말더듬 평가도구들을 비교한 결과 유창성장애 대상자들의 말더듬에 대한 특징 및 태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SSS는 말더듬의 특징 및 태도뿐만 아니라 말더듬의 중증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까지 할 수 있으며, 회피와 자기통제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유창성장애 대상자를 치료하고 이를 평가하는데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참고문헌

- [1] 이승환,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 [2]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 「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004.
- [3] G. Andrews, J. Cutler, Stuttering therapy: The relation between changes in symptom level and attitud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Vol.39, pp.312-319, 1974.
- [4] R. Erickson, Assessing communication attitudes among stuttere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Vol.12, pp.711-724, 1969.
- [5] G. Woolf, The assessment of stuttering as struggle, avoidance, and expectancy. *British*

Journal of Disorders of Communication, Vol.2, pp.158-171, 1967.

- [6] J. Riley, G. Maguire, Subjective stuttering scale. Unpublished document, 2002.
- [7] J. Riley, G. Riley, G. Maguire, Subjective screening of stuttering severity, locus of control and avoidance: research editio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Vol.29, pp.51-62, 2004.
- [8] 신문자, 주관적 말더듬 척도. 미출간 번역물. 신·언어임상연구소, 2002.W.
- [9] Manning, *Clinical decision-making in fluency disorders* (2nd ed.). San Diego, CA: Singular, 2001.
- [10] G. Riley, *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ults-third edition* (SSI-3). Austin, TX: Pro-Ed, 1994.
- [11] A. Cordes, R. Ingham, The reliability of observational data: II. Issues in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stuttering even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Vol.37, pp.279-294, 1994.
- [12] R. Ingham, A. Cordes, Self-measurement and evaluating stuttering treatment efficacy. In R. F. Curlee & G. M. Siegel (Eds.), *Nature and treatment of stuttering: New directions*. Boston, MA: Allyn and Bacon, 1999.